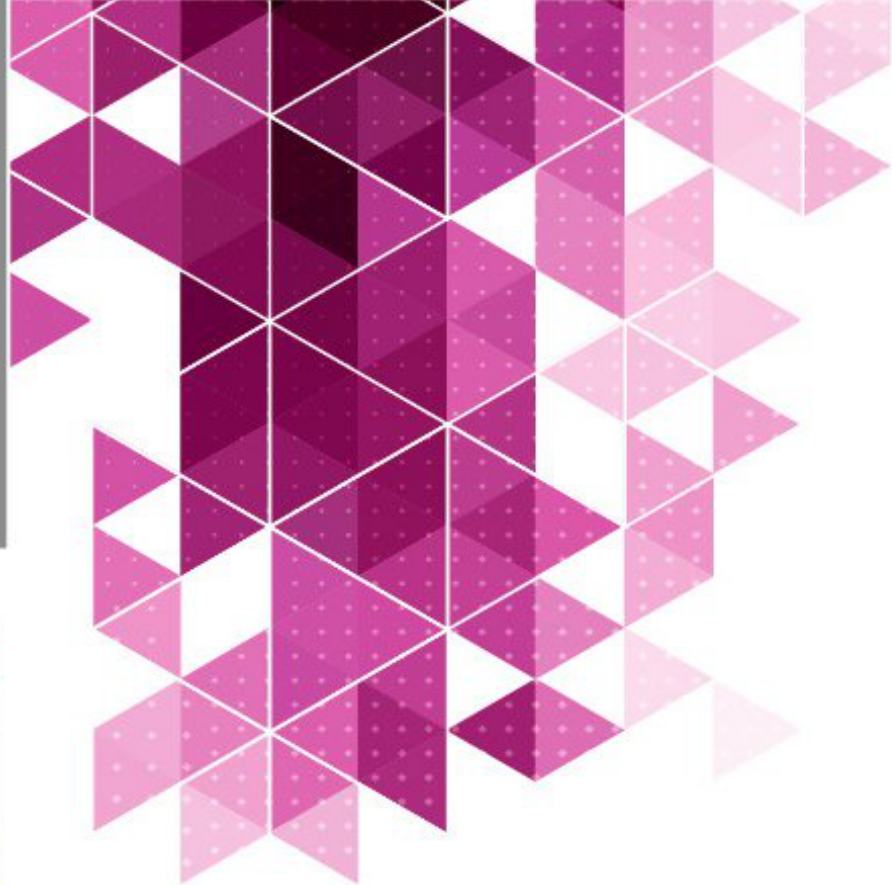


2017

최신수능기출

총력 만능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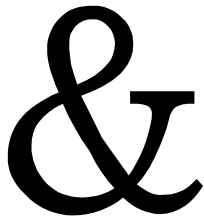


2017  
최신 수능 기출

총력 만능 국어

해설  
편

해설편



**해설편**

**차례**

총.만.국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chongmank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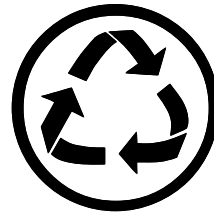
교재 구입  
Q & A  
오류 신고  
자료 업데이트

1회: 2016 수능 A.....	1P.
2회: 2016 수능 B.....	45P.
3회: 2015 수능 A.....	91P.
4회: 2015 수능 B.....	133P.
5회: 2014 수능 A.....	185P.
6회: 2014 수능 B.....	228P.
7회: 2013 수능.....	268P.



수능의 시작과 끝은 기출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합시다!

**by 최군 (2016.6)**



1회독: 정답을 신속히 찾는 데 중점  
2회독: 정답 치 오답의 근거를 철저히 파악  
3회독: 해설의 80%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1회독하면 30%를 알게 되고  
2회독하면 60%를 알게 되며  
3회독하면 80%이상이 내것이 된다.

**1회독: ( )월 ( )일**  
**2회독: ( )월 ( )일**  
**3회독: ( )월 ( )일**

#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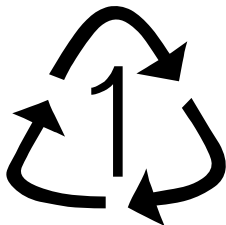
## 2016 수능 A형

###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④	5. ③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②
31. ①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⑤	37. ①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⑤	44. ④	45. ③

### <등급컷>

등급	등급컷 (원점수)	비율 (%)
1	96	4.25
2	90	7.84
3	84	12.33
4	76	16.38
5	65	19.37



### ※1~2, <라디오 대담>

#### 1. <화법>

#대담 #말하기방식 #취지 #순서안내 #확인질문 #개념 #인용 #수정 #요약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	3 %	2 %	2 %	89 %	4 %

#### ◆정답 ④

※ 선지는 모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문과 대응해 보고 정답은 두 부분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i.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갔을 때 보니까)**과
- ii. 관련이 있는지 **질문(~볼 수 있나요?)**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 i.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남한산성의~알아보고자)**를 밝히며
- ii.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순서**’를 뚜렷이 안내하고 있다면 첫째, 둘째, 먼저, 다음은, 나중에 등 **차례 관례**를 알 수 있는 말이 나와야 한다.

②

- i.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 ii.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배경지식을 물은 이는 해설사가 아니라 진행자이다. **행위의 주체를 바꾼** 오답이다. 행위의 주체를 바꾸는 방식의 선지 설정은 자주 등장하니 문장이 길고 복잡할수록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체에 집중하자!**

▶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 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③

- i. 해설사는 **문헌(택리지)의 내용을 인용(남한산성이~함락되지 않았다)**하여
- ii.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인용**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 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 ✎(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 인용)

[2016 수능A 3번]의 지문으로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됨!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 ⑤
- i.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 ii.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그럼~보겠습니다)하고 있다.

▶3문장 이상의 글이나 말이라면 언제든 요약의 가능성은 있다. 요약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은 원래의 말이나 글이 요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선지에 요약이 있다면 다섯 선지 중 가장 나중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

▶<안내>는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련 있기에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말과 대응된다. 그러므로 안내 여부의 판단은 지문에서 미래시제의 말에 주의하자!

★풀이 전략★

☞선지는 모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문과 대응해 보고 정답은 두 부분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이때 첫 부분부터 벌써 틀렸다면 ✎표시를 하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자.

2. <화법>

#대담 #제목 #의인법 #핵심내용을바탕으로 #활유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	2 %	90 %	1 %	1 %	3 %

◆정답 ②

\*<보기>: (학생2) 응. 포스터 초안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봐 봐. 포스터 제목은 의인법을 활용했고 답사 목적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봤어.

☞<제목과 답사 목적>의 조건인 의인법과 대담의 핵심 내용이

있는 선지가 정답.

- ㉠: 남한산성이 들려주는(의인법)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
- ㉡: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핵심 내용)을 살펴보기

⇒ 들려주는(소리나 말을 듣게 해 주는)행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남한산성을 사람처럼 표현했기에 의인법에 해당. 그리고 대담의 후반부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

◆오답 풀이

- ①
- ㉠: 우리나라 축성술의 꽃, 남한산성 →(의인법 ×)
- ㉡: 남한산성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축성술은 대담의 핵심어로 볼 수 있지만 축성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는 대담에 없는 내용이기때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할 수 없다.

- ③
- ㉠:우리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남한산성으로 떠나요! →(의인법 ×)
- ㉡:남한산성에 얽힌 향전의 역사를 확인해 보기 →(핵심 내용 ×)

- ④
- ㉠: 세계 속에 우뚝 선(활유법) 우리의 건축 문화, 남한산성
-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 보기 →(핵심 내용 ×)

⇒ 우뚝 선의 서다(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함)는 무생물(남한산성)을 생물처럼 표현했기에 의인법이 아닌, 활유법에 해당한다.

- ⑤
- ㉠: 남한산성의 돌, 신라 시대 축성술의 비밀을 간직하다. (의인 법)
- ㉡: 옛 주장성을 완벽히 재현해 낸 축성술(×)을 중심으로 남한산성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 보기

⇒ 간직하다(생각이나 기억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다)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표현이기에 의인법이다. 하지만 축성술이 주장성을 재현했다는 내용은 대담에 없다.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② **들려주는**(소리나 말을 듣게 해 주는), ⑤ **간직하다**(생각이나 기억 따위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다)는 생물 중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기에 의인법이고 ④ **우뚱 선의 서다**(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가능하기에 **<활유법>**이다.

☞ 의인법이 나온 문제에는 활유법이 잘 쫓아다닌다.

▶ **제목**은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인상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간결성만으로 본다면 서술어(~따나요, ~간직하다)로 끝나 길이가 가장 긴 그리고 두 번째로 긴 ③㉠, ⑤㉡는 상대적으로 좋은 제목은 되지 못한다. 책이나 포스터 등의 제목이 ③㉠, ⑤㉡처럼 긴 것을 거의 못 봤을 것이다. (☞ **하지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주의!**)

▶ 대담의 핵심 내용을 찾기 전에 더 쉬운 핵심어를 살펴보자. 핵심어는 7번이나 등장한 **축성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핵심 내용은 당연히 핵심어(축성술)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축성술이 없는 ③, ④는 정답에서 멀어진다. 나머지 ①, ⑤는 축성술/ ②는 더 구체적인 시대별 축성술이다. 대담 내용에선 축성술은 1회, 시대별 축성술은 6회 등장하며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있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다른 비슷한 문제 풀이시에도 영두하자!

☆ **선지 별 풀이 팁들은 다른 유사한 문제에도 충분히 적용되니 이 문제들을 나중에 다시 풀 때에는 해설의 내용을 최대한 자신의 말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수의 노하우** ★

☞ 비유법은 문학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으로만 아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착각! 화법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화법 문제에서 <보기>에 비유법이 등장하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비유법이 정답을 찾는 핵심 혹은 유일한 단서가 된다.

\*이번 문제에도 <보기>에 의인법이 제시되어 의인법이 반영된 선지 찾기가 핵심이다.

- ① 의인법 (×)    ② 의인법 있음 (정답)    ③ 의인법 (×)  
 ④ 의인법 (×)    ⑤ 의인법 있음

☞ 화법 문제 <보기>의 비유법만으로 정답을 찾거나 정답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3~5, <학생의 발표>**

**3. <화법>**

#말하기방식 #발표전략 #확인질문 #반응확인 #비교 #인용 #요약 #전문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	83 %	1 %	1 %	5 %	8 %

◆ **정답 ①**

[A]: 1) 이제 회토류에 대해 이해되었나요? 2) (그렇다는 대답을 듣고)

⇒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1)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2)

※ 다양한 질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상대에게 정보 요구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 ㄴ. 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
- ㄷ. 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회토류에 대해 이해되었나요?)
- ㄹ. 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이건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

★ 2016 수능 '질문' 관련 문제의 정답 사례!

[2016 수능 A 1번 문제의 정답]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2016 수능 A 3번 문제의 정답]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2016 수능 B 7번 문제의 정답]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 2016 수능 한 시험에서 '질문' 관련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었고 그것도 모두 정답 선지로 배치되었다!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에 질문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면 높은 정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하자!

◆오답 풀이

②

[A]: 발광 효율이 높아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발표 대상의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다.

③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한 부분(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이 있긴 한데 [A]부분이 아니라 3문단에 있다. 게다가 직접 인용이 아닌 간접 인용이라 더 확실히 오답이다.

\*인용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 **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 ⇨(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회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 인용)

[2016 수능A 3번]의 지문으로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됨!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 혹은 경력자인데 보통 **교수 및 학자 등의 실명**이 있기 마련하다.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와 같이 전문가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인용만 해서는 신뢰감을 주는 모범적인 인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은유법과 직유법은 문학이 아니더라도 국어 시험이면 꼭 나온다고 생각하자!

- ㄱ. **은유법**: A는 B이다 (우리의 지폐는 박물관이다)
- ㄴ. **직유법**: A는 B와 같은 (사과 같은 얼굴)

④ ⇒시각 자료를 활용한 것은 시작할 때가 아니라 중간부터이다.

⑤ ⇒ 발표 대상의 활용 사례를 설명(회토류 중 하나인 이트류이 활용된 사례)했지만 이를 요약하지는 않았다.

▶3문장 이상의 글이나 말이라면 언제든지 요약의 가능성은 있다. 요약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은 원래의 말이나 글이 요약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선지에 요약이 있다면 다섯 선지 중 가장 나중에 확인할 것을 권한다.

\*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말을 주고 받아야 하는 화법 상황에서 시간이 꽤 걸리는 요약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화법 문제에서 요약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지는 거의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화법>

# 발표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	1 %	1 %	2 %	92 %	2 %

◆정답 ④

\*지문의 1문단부터 정답의 근거를 찾는 이는 시간을 많이 낭비했으므로 일단 반성부터 좀 합시다! 선생님의 조언은 **발표의 마무리 부분**에 대한 내용이므로, 발표 내용의 마지막 문단만을 확인해야 한다.

\*‘발표에서는 효과적인 **마무리**가 중요해요.’ ⇨(본 지문의 **마지막 부분만을 고려할 것!**)

㉠

⇒회토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목적**)

▶목적, 의도, 취지 등은 같은 맥락으로 주로 지문 초반에 있음에 유의하자!

㉡

⇒‘산업의 비타민’ (**비유적 표현**)

▶비유법은 문학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으로만 아는 수험생이 많은데 이는 착각! 화법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 **비유법이 있는 선지는 대부분 정답의 범주안에 들어있음에 유의하자!**

㉢

⇒회토류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산업 분야에 걸쳐 주요 소재로 활용**)은 있어도 우리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것은 없다.

㉣

⇒ 생활 속에서 회토류가~**관심**을 갖고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관심 갖기를 권함**)

※마무리 지문은 6문장이고 선생님의 조언 내용은 4개(㉠~㉤)이다. 이런 유형의 경우 **미니 지문의 ㉠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문의 첫 문장과 대응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신속하다.

(위의 문제는 지문의 첫째 문장-㉠, 둘째 문장-㉡, 셋째 문장-x 넷째 문장-㉤)

☞ 둘째 문장(산업 분야에~주요 소재로 활용)은 희토류의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낼 뿐이지 ㉤의 우리 삶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것까지 연결해보긴 어렵다.

♣혹시 2문단 마지막 문장(희토류를 포함한~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널리 사용)을 ㉤과 연결해 보았다면(‘전망을 제시한다’라는 부분과는 연결되지도 않겠지만) **밑줄 친 부분외의 다른 문장은 대충 볼 것이다!**라는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셈이다

5. <화법>

#발표 #추가설명 #3점 #질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	2 %	2 %	90 %	2 %	4 %

◆정답 ③

⇒발문의 핵심은 ‘추가 설명’이다. 화법 상황에서 말한 내용에 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선지 ③은 추가 설명이 없어도 지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특히나, 학생 3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 (2010년을 기준으로 이후 25년간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바로 다음 문장에 질문을 만족시킬 답이 있다.

(지문) 2010년의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약 13만 톤이었는데요.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는 없나요?

⇒(3문단 3문장)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

☞오히려 ③과 같은 추가 설명 요청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오해를 살 만한 예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나머지 선지의 질문들은 지문에서 알 수 없고 발표자가 추가 설명을 해야만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생략

★초미니 칼럼★

수능 문제의 배점은 2점과 3점으로 3점에만 문제에 표시되어 있다. 아무래도 2점짜리 문제보다는 어렵다. 문제의 해설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2016학년 수능 시험의 3점짜리 문제들의 정답 분포가 특정 선지에 몰려 있음을 발견했다.

<2016 수능 3점 문제 선지별 정답률>

선지번호	①	②	③	④	⑤
정답률	5%	10%	30%	20%	35%

수능과 같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험은 문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각 선지별 정답률을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한 번로 모든 문제를 찍는다면 평균 20%의 정답률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3개의 선지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은 60%인데 2016 수능 3점짜리 문제만 놓고 본다면 선지 ③+④+⑤의 정답률은 60%를 넘어서 85%이다.

우연일 수 있겠지만 혹시 우연이 아닌, 출제자의 어떤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면 다음이 아닐까한다. 그것은 그래도 좀 어렵고 고심해서 만든 3점짜리 문제의 정답이 선지의 초반인 ①, ②에 나오면 수험생들이 정답을 너무 빨리 찾아 뒤에 있는 매력 오답을 만나지도 못할까하는 아쉬움 때문에 정답을 일부로 뒤 쪽으로 설정한 결과물인 듯 싶다.

그렇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3점짜리 문제를 만나면 선지를 ③, ④, ⑤, ①, ②순으로 뒤에 것부터 읽으면 정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지 않을까한다.

※6~8 <작문 계획과 초고>

6. <작문>

#작문계획 #초고 #개념 #현황 #사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6 %	2 %	0 %	0 %	1 %	96 %

◆정답 ⑤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음!

◆오답 풀이

① ㉠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특성** 서술

⇒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 사람들이 여행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 한 번에 여행 코스를 짜 주는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한다. [1문단]

▶ **특성**은 대부분 **장점**과 연결됨에 유의!

② ㉡ 앱 개발 시 부딪히는 **난점** 언급

⇒ 막상 앱을 개발하려 할 때 부딪히는 여러 난관이 있다. 여행지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도 문제이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문제이다. [1문단]

▶ **난점-어려움-문제점-근관** 등의 어휘는 같은 맥락이니 지문-선 시간 대응시 잘 살펴보자!

③ ㉢ 공공 데이터의 **개념** 정의

⇒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된 것을 말한다. [2문단]

▶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개념’ 하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④ ㉣ 공공 데이터의 제공 **현황** 제시

⇒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문단]

▶ **현황**은 **수량**과 관련있으니 **숫자**에 집중하자! (**현황-수량-숫자**)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다!

\* 만약 여행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에서, 주차장 앱을 만들고자 한다면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문단]

☞ 위의 지문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가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수험생은 사례와 예시의 정확한 구별을 안했기에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사례>가 과거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정을 나타내는 3문단의 내용(만약~있다)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의 ‘사례’를 ‘예시’로 바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예시’가 적절한 표현이다.

♣국어도 영어처럼 낱말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하며 정답과 오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등장하는 국어 낱말은 사전적 의미까지 정리해 두자.

\* 작문 계획에서 ㉡과 ㉢사이의 항목(앱 개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가 갖는 장점 진술)은 초고의 3문단에 해당한다.

\* 초고의 마지막 문단은 작문 계획 중간에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이다.

7. <작문>

#작문계획 #요약 #핵심내용반영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	2 %	3 %	2 %	92 %	0 %

◆정답 ④

초고 3문단에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 2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1) 편의 제공을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많다

2) 정보 수집 및 갱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이 2가지는 동등하게 중요하므로 요약 할 때 2가지를 모두 포함해야한다. 거기에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까지 더해져 총 3가지를 반영한 것이 정답이다.

i.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 2가지 요약)

ii. 그러므로 앱 개발 시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다.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

☞<영향력>은 미래 표현(~= 것이다)과 대응됨.

◆오답 풀이

①

i. 공공 데이터는 국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다. →(1번째 장점만 있음)

ii.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이용이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공공 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영향)



②  
i. 공공 데이터는 자본과 아이디어가 부족해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초고에 있는 장점이 아님) →(요약은 초고에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야함)

ii. 앱 개발을 통한 창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앱 개발을 통한 창업 활성화는 작문 계획에 없는 내용)

③  
i.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2번째 장점만 있음)

ii. 앞으로 공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앱도 더 다양해질 것이다. →(앱 개발에 미칠 영향)

▶<영향력>은 미래 표현(~= 것이다)과 대응됨.

⑤  
i. 공공 데이터는 앱 개발을 할 때 부딪히는 자료 수집의 문제와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쉽게 앱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2번째 장점만 있음)

ii.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이 아닌 데이터 이용에 대한 낮은 인식을 문제 삼음)

8. <작문>

#고쳐쓰기 #조사 #부사 #능피동 #주사동 #주술호응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	1 %	1 %	90 %	7 %	0 %

◆정답 ③

<늘리다>: 1) 물체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2)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늘리고)  
3)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가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게 하다.

<늘이다>: 1)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2)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굿다.

⇒ ㉠<늘리고>는 데이터의 양, 곧 수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고치지 않고 '늘리고'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오답 풀이

⇒ ㉡는 행동(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심에서'로 고쳐야한다.

\*'도심에 주차장이 있다.'→(행동이 아닌 상태라면 '~에'를 사용)

- ① <에>: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3)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에서>: 1)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2)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대상의 움직임 혹은 행동이나? 성질 혹은 상태냐? 즉, 동사 V S형용사 구분 테마는 자주 출제된다. 대상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아 움직임이 있는지(동사) 없는지(형용사)를 판단하자!

②  
⇒ ㉢는 접속어로 앞 뒤 문장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아이디어 포기○+ ㉢접속어+아이디어 포기×

⇨반대 맥락이므로 그래서(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러나(역접관계)로 고쳐야한다.

④  
⇒ ㉣<시행~>의 주체가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능동형(시행한)으로 고쳐야한다. 만약, 주체가 생략되거나 ~의해서가 붙으면 피동형(시행된)이 된다.

i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의~ (→주체 생략)

ii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서 ㉣<시행된> 정책의~

▶<능동-피동-주동-사동>은 2년에 한 번정도 출제되는 단골 테마!

※<능동, 주동, 피동, 사동>에 대해 알아보자!

- 0) 능동적=주동적=스스로 움직임!  
1) 피동: 주체가 일을 당함 (문이 닫힌다)  
2) 사동: 주체가 일을 시킴 (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  
→(주동형이 사동형으로 바뀌면 주체(주어)가 객체(목적어)로 바뀜)

⑤  
 ⇒<들다>의 사동형 ㉔<들이지>는 ‘비용을’과 호응하며 <들지>는 ‘비용이’와 각각 호응한다.

\*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여겨 선택한 것이 정답일지라도 정확한 문법적 의미와 쓰임을 알아두자.

※9~10, <학생의 초고>

9. <작문>

#초고반영 #연상 #안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7 %	1 %	0 %	0 %	97 %	0 %

◆정답 ④

※떠올린 생각-초고 반영은, 곧 지문-선지 간의 대응성 여부으로 풀 수 있다. ⇒선지 ④만 빼고 모두 지문에 대응됨.

◆오답 풀이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이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걸을 스쳐 갔다.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 앉아 바쁘게 오고 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①마음의 여유 갖지 못함)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다.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것(→②이전에 주목하지 못한 것 인식)이라는 생각을 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걷다가 문득 ‘어, 한 나무에서 돌아난 나뭇잎들인데 빛깔이 다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보니 수많은 나뭇잎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③다양성의 가치 발견)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가을의 아침을 나무들과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다.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⑤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억),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지문 선지간 대응성 파악 문제는 대부분 순서대로 연결된다.  
 \*지문 1,2,3-문단 →선지 ①, ②, ③~ (한 문단에 1~2개의 선지가 대응되는 것이 보통)

(국어 시험에서 교훈으로 자주 강조하는 덕목이라 웬지 있을 것 같지만) ④의 인내와 관련된 것은 지문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인내를 조화로 바꾼다면 적절한 대응이 된다.

(2문단)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④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구나.)

※연상 관련 문제 중에는 어려운 추론을 요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3점짜리이기 마련이다. 3점짜리가 아니니 쉽고 단 순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자.

10. <작문>

#초고점검 #내용추가 #공통선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5 %	1 %	0 %	95 %	1 %	0 %

◆정답 ③

발문의 핵심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문장’에 주목. 그래서 정답은 초고의 마지막 문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것은 삶의 빛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끝문장]

→(삶의 빛깔, 다르다(차이점)가 있는 것은 ①, ③)

- ① ~구성원들이 서로의 빛깔 차이를 줄여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

- ①은 색깔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봄 (줄여 가야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
- ③은 색깔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봄 (인정의 대상이기 때문)

⇒ (2문단) 다른 빛깔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라는 내용을 통해 색깔의 차이를 긍정적(조화의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답은 ③이다.

※미니 지문에 제시된 조건은 총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1) 끝에 문장 하나를 추가 (→**삶의 빛깔, 차이**)
- 2) 2문단에서 쓴 내용으로부터 (→**삶의 빛깔, 조화**)
- 3)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 조건 3)은 모든 선지에 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답 변별력은 없다.

- ① 사회가 아름다운 하나의 빛깔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 ②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나의 고유한~
- ③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정답)
- ④ ~각자의 빛깔을 드러낼 기회를 줄 때 사회는 더욱~
- ⑤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의 태도를 바꾸기~

### 11. <문법>

#음운변동 #선지오류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 #음운축약 #음운탈락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0 %	6 %	3 %	70 %	17 %	1 %

#### ◆정답 ③

㉠ 음운 축약  
옴지→[올치] (ㅎ+ㅈ⇒ㄷ), 좁히다→[조피다] (ㅂ+ㅎ⇒ㅍ)

㉡ 음운 탈락 (ㅎ탈락)  
끓어→[끄너], 쌓이다→[싸이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숯도→[숯도]→[숯또], 웃고름→[웃고름]→[웃꼬름]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닭는→[닥는]→[당는], 부엌문→[부억문]→[부영문]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읽지→[익지]→[익찌], 훑거나→[훑거나]→[훑꺼나]

→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ㄱ, ㄷ, ㅂ, ㄴ, ㄹ, ㅁ, ㅇ)로 제한되는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말하는 것이다. <㉢, ㉣, ㉤>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깊다→[깁다]→[깁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 ◆오답 풀이

① ⇒ ㉠만 음운 축약이고 ㉡은 음운 탈락이다.

② ⇒ ㉢, ㉣만 된소리 되기이고 ㉤은 음운 축약 현상이다.

④

\* <결모양>→ [견모양]:음절의 끝소리 규칙→[견모양]:비음화  
⇒ ㅌ, ㄷ, ㄴ(혀끝소리)와 ㅁ(입술소리)은 조음 위치가 다르다.

(비음화는 비음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으로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위치는 그대로인채 조음 방법만 같아지는 현상이다. ㄷ이 ㄴ으로 바뀌는 것은 조음 위치(혀끝소리)는 그대로,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뀐 것임. →ㄴ과 ㅁ은 울림소리로 모두 비음이다)

▶비음(ㄴ, ㅁ, ㅇ)→**코를 통해 나는 소리(O)**! 코의 위치에서 나는 소리(X)

⑤ ⇒ ㉤만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고 ㉣은 그렇지 않다.

#### ★알아두면 좋을 꿀팁★

##### ♣선지 오류의 법칙!

☞선지 ④는 지문 혹은 발문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이다. 제시문을 통해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하는 시험의 출제 지침에 어긋나는 선지 형태이다.

☆ **만약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 선지 자체의 오류를 발견하면 주저없이 그 선지를 정답으로 판단해야한다.** 이런 허술한 문제가 수능에 자주 등장한다.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2015 수능 정답)

→ (독서 할 때뿐만 아니라 작문을 할 때에도 배경 지식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오히려 작문 상황에서 불 필요하게 보고 배제하는 경우를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 매우 어려워 부정형 발문에서 거의 정답에 가깝다.)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2014 수능의 정답 선지)

→UCC 제작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는 상식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어 선지 오류임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2013 수능 정답 선지)

→ ‘소리’와 ‘바람’의 속성은 장애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이 있다. 이를 자유의 의미와 대비된다고 표현한 선지 ③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015 6월 평가원 정답 선지)

→ 말하기의 종류인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기의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선지 ⑤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12. <문법>

#조사 #이형태 #어간 #어미 #단어자격 #실질적 의미 #문법적 의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	7 %	1 %	85 %	2 %	2 %

◆정답 ③

※ 정답은 밑줄 친 부분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1)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조사 (문법적 의미)
- 2) 그의 말은 들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어간 (실질적 의미)
- 3)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 어미 (문법적 의미)

- 1) 조사: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말과 결합해야하며 앞말이 자음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것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다. (물건이, 악어가)
- 2) 어간: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미와 결합해야하며 뒷말이 자음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기도 한다. (짓고, 지어서)
- 3) 어미: 홀로 쓰이지 못하고 어간과 결합해야하며 앞말이 양성 혹은 음성 모음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기도 한다. (먹었다, 막았다)

◆오답 풀이

① ⇒ 조사에만 해당된다.

▶ 단어의 자격? 단어는 뜻을 갖고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다. 반면에 조사는 뜻만 갖고 자립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단어에 쉽게 붙고 뗄 수 있는 성질(준 자립성 인정) 때문에 단어로 인정한다. “좀 억지스런 이론을 위한 이론 같지만 이것을 테마로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

② ⇒ 어미가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단어의 자격은 없다. (자립성×)

④ ⇒ 어간의 경우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⑤ ⇒ 어간의 경우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면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실질적 의미냐? 형식적 의미냐? 문법에서는 둘을 바꿔치기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 어간은 실질 형태소!

▶ 자립 형태소(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다. 그렇다고 실질 형태소의 모두가 자립 형태소는 아니다. 바로 어간 때문이다. 어간은 자립성이 없는 의존 형태소라 마치 의미가 빈약한 형식(문법)형태소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어미가 형식적 의미를 지닌다. 이를 고려하여 출제자는 오답 ⑤를 만든 것이다.

13. <문법>

#보조용언 #진행 #상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2%	4 %	3 %	5 %	82 %	4 %

◆정답 ④

※ A의 물음 때문에 B는 현재 안경이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A: 1)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2)괜찮아? (→2가지의 물음)  
B: 눈이 아주 나쁜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A는 B에게 2가지를 물었지만 B는 2)에 대해서만 대답했다. 하지만 2)에 대한 대답만으로 안경을 잃어버려서 현재는 안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숨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 1)의 물음이 자연스럽게 해결됨

- Ⓒ A: 너 안경 잃어버렸더라? 괜찮아?  
 B: (응, 잃어버렸어! 근데) 눈이 아주 나쁜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O)  
 B': (아니, 안경 있는데!) 눈이 아주 나쁜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X)

⇒그래서 안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은 생각해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④는 ②의 예가 안 되니(안경을 벗는 중이다X) 당연히 ③의 예도 안 된다. 그래서 안경이 없어서 벗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⑥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② ⇒ 양치질(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의미 유지, 자연스러움)  
 ② ⑥ ⇒ 오해(상태)하고 있는 중이다. (→부자연스러움)  
 ③ ⑥ ⇒ 알고(상태) 있는 중이다. (→부자연스러움)
- ▶우리는 한국말을 10년이상 써온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감으로도 80%이상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정확한 학습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자.
- ⑤ ③ ⇒ 넥타이를 (손으로) 매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  
 넥타이를 이미 매어 놓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넥타이를 매고 있네'가 여러 문맥에 따라 의미가 한정되기도 한다.

- A: 저 신입사원 지금 손으로 무엇을 하는 행동이지?  
 B: 넥타이를 매고 있네. → (동작 진행만을 나타냄)
- A: 잠자는 저 신입사원은 무엇을 입고 있지?  
 B: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네. → (상태 지속만을 나타냄)

▶대상의 움직임 혹은 행동이나? 성질 혹은 상태냐? 즉, 동사 V S형용사 구분 테마는 자주 출제된다. 대상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아 움직임이 있는지(동사) 없는지(형용사)를 판단하자!

14. <문법>

#사전 #시간성 #부사 #복합어 #서술어자릿수 #상식판단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1 %	1 %	71 %	5 %	21 %	0 %

◆정답 ②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 \*새벽같이 떠나다  
 (매일: 각각의 개별적인 나날, 새벽: 먼동이 트려 할 무렵)

⇒매일과 새벽은 시간적 표현과 관련된 말로써 <같이>: ㉠㉡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어휘에 시간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시간성이 있다면 과거-현재-미래 중 어디냐를 선택하는 테마는 자주 출제된다. 어휘의 의미를 자세히 따져봐 시간 혹은 때와 관련된 특성이 있는 생각해보자!  
 (\*새벽, 매일→시간성 ○ \*얼음장, 친구와→시간성 ×)

◆오답 풀이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면,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부사격 조사도 결국 부사가 아닌 조사이다  
 →(같이)가 붙은 말이 뒤의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격 조사임)  
 \*예시: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새벽같이 떠나다

③ ⇒뜻풀이를 볼 필요도 없이, '같이-하다'의 표제어만 살펴보자. 같이와 하다 사이에 줄표(-)가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단일어가 아닌, 복합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단일어는 1어근으로 쪼갤 수 없어 줄표(-) 사용 불가!)

※ 단어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ㄱ. 단일어-(1어근)  
 ㄴ. 복합어-(합성어: 2어근 이상, 파생어: 어근+접사)

▶결국 단일어나 아니냐의 문제! 단어가 쪼개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보자!

☞뜻풀이를 보더라도, 같이와 같이-하다는 분명 서로 뜻이 다르다. 하다는 분명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같이-하다는 복합어임을 알 수 있다. (굳이 뜻풀이의 내용까지 꼼꼼히 볼 필요가 없음!)

★최소한의 단서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 **같이하다**의 용례를 통해 **서술어 자릿수**를 살펴보면,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 →(세 자리 서술어)
- \*평생을 같이한 부부 →(두 자리 서술어)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 →(세 자리 서술어)
- \*견해를 같이하다 →(두 자리 서술어)

▶제시문에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는 서술어의 자릿수 정도는 꼭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임을 말해준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암기해두자!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를 제외**하고 갯수를 판단)

- ㄱ. **1자리 서술어**: 주어+(서술어)
- ㄴ. **2자리 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 ㄷ. **3자리 서술어**: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⑤  
⇒뜻풀이와 용례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같이한**'은 '**함께한**'과 거의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상식으로** 알 수 있다. 당연히 교체하여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어휘 상식임! ( '**같이한**' = '**함께한**' )

### 15. <문법>

#정확한 문장 #주사동 #접속조사 #연결어미 #주술호응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	3 %	90 %	2 %	1 %	1 %

◆정답 ②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문장!

◆오답 풀이

①

\*그는~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그는~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발전시켜**)로 바꿔야 함

↳서술어를 '**발전해~**'로 그냥 둔다면 (\***사회 이론이** 더욱 발전해~)가 됨.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된다.**

\***사회 이론**이 발전하다. (→주동문) /  
**사회 이론**을 발전시키다 (→사동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주동문) /  
**비용**을 들지 않기 때문에(사동문)

(2016 수능)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인 것 같지만 첫째가 서술어이고 그 다음이 주어이다. →(1순위-서술어, 2순위-주어) 그래서 이 둘의 관계의 호응성을 묻는 테마의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문장이 길고 복잡할수록 **서술어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어를 파악**해두자!

③

\*유럽은~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유럽은~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유럽은~생산 기술이 발달했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 접속조사 '**과**'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i 생산 기술의 발달 ii 사회 조직의 큰 변화》

↳ 이 둘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려면 '**따라**'를 '**따른**'으로 바꾸어 줘야한다. (따라: 부사어, 따른: 관형어)

→ \* 유럽은~<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겪었다**의 주체는 유럽!)

※ '**그에 따라**'로 문장을 이어주려면 주어인 발달을 '~과' 대신 '**~고**'가 붙은 서술어 형태로 바꿔 **생산 기술(주어)과 호응**시켜야 한다. (~과: 접속조사, ~고: 연결어미)

▶주어-서술어의 호응! 역시나 중요하다

④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다.**

\*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알아야 한다.**(×)

\*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다>는 사람만이 가능한 상태인데, 요점이 안다고??? 의인 법도 아니고 말이 안됨!

▶주어-서술어의 호응! 또 또 중요하다! 문법의 정확성 문제는 1 순위로 **주-술관계를** 따져라!

⑤

\*그의 작품들은~**작품 이름의 혼동이나(×)**~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 \*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했다.
- \*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 두 개 문장은 조사 '이나'가 아닌 **연결어미 '거나'**를 사용해 **연결해야**한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 **조사 v s 어미**를 알아보자!

- 1) 접속조사: 주로 **체언**을 연결
- 2) 연결어미: 서술어가 포함된 **2개의 문장 단위**를 연결

▶ 문장이 길면 쪼개서 차근차근 따져보라.  
특히 주어+서술어가 제대로 있는지를!

**※16~18,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주제: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힘**

- 1)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 2) 돌림힘의 개념과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
- 3) 두 돌림힘의 방향과 알짜 돌림힘의 크기의 관계
- 4) **알짜 돌림힘이 물체에 한 일** (18번 정답 근거)
- 5) 알짜 돌림힘이 물체에 한 일의 예시
- 6) 알짜 돌림힘과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속도의 관계  
↳(16, 17번 정답 근거)

- 1) \***힘점**: 지레에서 힘을 주는 곳.  
\***받침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  
\***작용점**: 물체에 힘이 작용하는 곳.  
▶(받침점~힘점)의 거리가 (받침점~작용점)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큰 힘 가능.

- 2) \***돌림힘**: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  
\***돌림힘의 크기**(N·m)=(회전축~X) × (가해준 힘)

▶물체에 힘을 가하면- 회전 운동, 회전 속도에 영향

- 3) \***알짜 돌림힘**: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  
▶같은 방향 돌림힘: A + B / 다른 방향 돌림힘: A - B  
\***돌림힘의 평형**: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 **알짜 돌림힘: 0**

- 4) **알짜 돌림힘이 한 일**(J 줄)=  
(알짜 돌림힘의 크기)×(회전 각도의 굵)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할 때만, 회전 속도의 변화가 있음.

5) 알짜 돌림힘이 한 일 =  $[(2 \times 200) - (1 \times 300)] \times 0.5\pi = 0.5\pi$

- 6) \***양의 알짜 돌림힘**: 회전 방향과 일치, 운동 에너지(속도) 증가  
\***음의 알짜 돌림힘**: 회전 방향과 반대, 운동 에너지(속도) 감소  
▶(회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속도의 제곱)은 정비례

**16. <과학>**

#수치비교 #정비례 #내용일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	1 %	2 %	2 %	3 %	88 %

◆정답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끝문단]

⇒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 따라서 회전 운동에너지는 2의 제곱=4배가 된다.

◆오답 풀이

①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한다.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 [2문단]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돌림힘이 작용해**(↳반대형이 바로 선지 ①) 물체의 회전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

▶지문: A 하면 B 하다→(적절 선지: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다)  
**빈출 유형☆**

②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3문단]

⇒알짜 돌림힘이 0이면 **돌림힘이 평형**이 되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음. (⇨반대형이 바로 선지 ②) 즉,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함.

▶지문: A 하면 B 하다→(적절 선지: A 하지 않으면 B 하지 않다)

**빈출 유형☆**

♣ **내용일치 문제는 최대한 시간 낭비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에 숫자 0에 주시하여 일단 숫자 0이 있는 문단은 3문단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3문단]

⇒**돌림힘의 작용(A)으로 회전 속도가 증가** 혹은 감소함 (B).  
(⇨선지 ③은 B + A의 구성)

▶지문: 원인 + 결과 → (적절 선지: 결과 + 원인)

④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1)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2)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3문단]

⇒ 선지 ④는 지문 1)+2)의 조합이다.

▶지문: 1 문장 + 1 문장 → (적절 선지: 하나의 겹문장)

**★굉장히 유용한 팁★**

♣ **출제자의 심리:**

⇨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등 수치까지 나오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수치가 들어간 선지를 정답으로 자주 설정**한다.

**(정답 선지만이 유일하게 수치 비교가 있음!)**

\* (2016 수능 16번) 정답 선지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 (2016 수능 18번) 정답 선지

④ A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 (2016 수능 22번) 정답 선지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한 시험에서 3 문제나! 이것은 우연이라기 보단 출제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5개의 선지 중에서 비교 형태의 선지가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봐야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17. <과학>**

#계산 #상황이해 #특정지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3 %	7 %	73 %	3 %	7 %	8 %

**◆정답 ②**

\* <가>: 알짜 돌림힘이 문에 해준 일은 **50πJ**이다.

\*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끝문단]

⇒ 숫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있어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2개 문단의 내용 조합→ (적절한 선지 한 문장)

**◆오답 풀이**

①

\***알짜 돌림힘:**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 [3문단]

\***돌림힘:**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m (뉴턴미터) [2문단]

⇒ 문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힘=을(2×200)-감(1×300)=100 N·m으로 **변화 없이 일정**하다.

♣ 끝 문단에 회전 운동에너지와 회전 속도가 감소 및 증가하는 설명이 있어 수험생을 헛갈리게 하려는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지문 속 개념 계산 문제는 과학 기술 문제에서 꼭 나온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5개의 선지 중에서 정오 판단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걸리므로 다른 선지를 먼저 살펴본 뒤 나중에 보는 것이 좋다.**



③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됨** [끝문단]

⇒ <가>는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므로 돌림힘의 평형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다.**

▶ 지문: A이면 B하다 → (부적절 선지: B하지 않으면 C하지 않다!)

④

⇒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서로 방향이 다르다.

\*알짜 돌림힘의 방향: 을→갑 (을이 갑보다 돌림힘이 크기 때문에)  
 갑의 돌림힘의 방향: 갑→을

⑤ ⇒ 갑의 돌림힘:  $1 \times 300\text{N}\cdot\text{m}$  < 을의 돌림힘:  $2 \times 200\text{N}\cdot\text{m}$

18. <과학>

#출제자의 심리 #3점 #보기 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0 %	6 %	6 %	5 %	70 %	10 %

◆정답 ④

\***알짜 돌림힘이 한 일**: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 [4문단]

\***알짜 돌림힘**: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 [3문단]

\***돌림힘**: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N·m (뉴턴미터) [2문단]

⇒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라면 B에 가해주는 힘만 남아서 한 쪽 방향으로만 회전한다. 그런데 B에 가해주는 힘은 동일하고 원판 회전 수(회전 각도)에 따라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배수를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두 바퀴 회전(720도)과 한 바퀴 회전(360도) ⇒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2배차이**이다.

◆ 왜 하필 선지는 4배라고 했을까? 출제자의 심리를 알아보자!

⇒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끝문단 3문장**)한다는 내용을 보고 **제곱에 정비례**라는 내용만이 머릿속에 남아 무턱대고 적용했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두 바퀴 회전(720도)과 한 바퀴 회전(360도) ⇒ 2배차이!(○)  
 \*(영동하게 회전 속도까지 생각해서) 제곱에 정비례는 4배!(×)

◆오답 풀이

①

\*1)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어떤 물체에 2)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그만큼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끝문단]

⇒ 두 힘은 같은 크기이기에**[보기 4줄]** 돌림힘은 B가 더 크다. 왜냐하면, 힘이 동일하고 B가 A보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이다. 그리고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알짜 돌림힘은 B-A가 되며, 결국 B의 힘이 남아 B의 방향(시계 반대)으로 힘이 가해지며 마찬가지로 원판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보기 6줄]**

그래서 [끝문단]의 내용에 따라,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1) ⇒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함** ⇒ **회전 운동 에너지(속도) 증가2)**

②

1)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2문단]

⇒ 1)때문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제거 된다면 회전 속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원판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보기 끝문장] 원판에 마찰력이 미치는 등 회전 속도에 변화를 줄 만한 다른 변수를 생각하면 안 됨!)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B의 힘만 남게 된다. B의 힘은 그대로 알짜 돌림힘이 되며 **시계 반대 방향[보기 5줄]**으로 원판의 회전 방향(**시계 반대 방향**)과 일치한다.[끝문단 1문장]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며 회전 속도가 증가함.**[끝문단 끝문장]

⑤

⇒B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A의 힘만 남게 된다. A의 힘은 그대로 알짜 돌림힘이 되며 **시계 방향[보기 5줄]**으로 원판의 회전 방향(**시계 반대 방향**)과 반대임.[끝문단 1문장]

⇒알짜 돌림힘이 음(-)**의 일을 하며 회전 속도가 감소하여 결**

국 0이 되었다(원판이 멈춤) 이때부터 처음 시계 반대 방향에서 A의 힘의 방향과 동일한 시계 방향으로 일치됨.

↳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며 회전 속도가 증가함.  
[끝문단 끝문장]

★굉장히 유용한 팁★

♣ 출제자의 심리: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 등 수치까지 나오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수치가 들어간 선지를 정답으로 자주 설정한다.**

(정답 선지만이 유일하게 수치 비교가 있음!)

\*(2016 수능 16번) 정답 선지  
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2016 수능 18번) 정답 선지  
④ A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2016 수능 22번) 정답 선지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 한 시험에서 3 문제나! 이것은 우연이라기 보단 출제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5개의 선지 중에서 비교 형태의 선지가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봐야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커뮤니티 질문 & 풀이 후기”

Q.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있는데 풀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 너희들의x x

↳ 문 하나를 안에서 밖에서 동일한 힘으로 밀면 문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지레의 힘점에 주는 힘과 그 반대인 작용점의 힘이 같은 경우라면 알짜 돌림힘은 0이되고 <돌림힘의 평형> 상태가 된다.

Q. 18번 선지 ㉔에서 알짜 돌림힘을 물어는데 A의 힘을 제거 했으니 힘은 하나가 되는 건데 알짜 돌림힘은 두 개의 힘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거 고민 하느라 한 시간을 날렸네요 가까운 내시간 ㅋㅋㅋ 해결 좀해주세요. / koknxx

⇒ 제거된 A의 힘을 '0'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힘과 더한 것이 알짜 돌림힘이 된다. ↳ (힘이 없다!) = ('0'의 힘이 존재!)

Q.갑과 을이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N의 힘으로 미니깐 돌림힘의 방향. 동격으로 회전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둘의 방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데 왜 틀린건가요? / 연대고대x x

⇒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4째줄] 에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돌림힘의 방향도 반대이다. 을이 갑보다 돌림힘이 크기 때문에 알짜 돌림힘의 방향은 (을→갑)으로 갑의 돌림힘의 방향인 (갑→을) 과는 반대가 된다.

•저도 돌림힘 지문에서 시간 제일 많이 쓴 듯..물리. 기술지문 제발 aut / 씨유x x

•현장에서 돌림힘하고 그 다음 지문에서 20 자살충동생겼음 / 두부다x x

•국어 진짜 못하는데 돌림힘 지문 읽는데 너무 쉬워서 지문 대충 훑어읽고 문제 바로 풀. 참고로 물1러입니다 배경지식 무시 못하는 듯 / 기기기 기기기x x

•돌림힘 지문을 이해 하지 못하겠음 비례 관계로 지랄 발광해도 맞출 수 있는 건 보기 뿐 나머지 2문제..진짜 다시 분석하기도 싫은 알짜 돌림힘;; / 난널x x

•처음에 이런 돌림힘 지문 나와서 당황했 / 래리x

•물리러 분들은 돌림힘 파트는 글 안 읽고도 풀 수 있었을 듯 / SoulCx x

•문돌이인데 진짜 과학 지문 너무 어렵다. 국어가 아니라 그냥 과학하는 수준인데..내용 일치 문제는 풀겠는데 나머지 이해하는 문제는 진짜 손대 못대겠다 나만 이러나 이런거 어떻게 풀지 / 40x x

↳ 고 2이레긴데 저도 이해안가서 뭐지 그냥 풀었어요. A→B 이런 식으로 대응 찾아 가면서 / 노담x x

↳ 이 지문 보고 암걸릴 정도라던데... / yzi x x

↳ 물리1 배우면 거의 안보고 풀 수 있음 / 공공공대x x

**※19~21, <에벌랜치 광다이오드>**

\*주제: 에벌랜치 다이오드의 작동 과정

- 1)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에벌랜치 다이오드'
- 2) '에벌랜치 다이오드'의 구성과 양자 효율  
 ↳ (19번, 20번 정답 근거)
- 3) 광신호의 세기가 전류의 크기로 변환되는 과정  
 ↳ (21번 정답 근거)
- 4) '에벌랜치 다이오드'에서 검출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

- 1)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  
 →(광자의 수가 적음)  
 \*에벌랜치 광다이오드: (광자 검출로) 약한 광신호를 적절한 전기 신호로 변환
- 2) \*흡수층: (광자가 입사되면) →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  
 \*양자 효율: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
- 3) \*에벌랜치 전기장: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짐  
 \*충돌 이온화: 전자와 원자들이 충돌하여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들  
 \*에벌랜치 증배: 새로운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함. →(전자의 수 증가)  
 \*증배 계수: 에벌랜치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짐  
 \*전류의 크기: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  
 ▶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
- 4) \*에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검출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  
 실리콘 (300~1,100nm), 저마늄 (800~1,600nm)

19. <기술>

#대상 바꿔치기 #내용일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7 %	2 %	87 %	5 %	2 %	1 %

◆정답 ②

\*1)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2)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2문단]

⇒에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2)하려면 광자가 입사1)되어야 함.

▶ 지문: A 되면 B 하다→(적절 선지: B 하려면 A 되어야 함)  
**빈출 유형임☆**

◆오답 풀이

①

\*약한 광신호를 측정이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반도체 소자로서 에벌랜치 광다이오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1문단]

⇒ 광다이오드는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 지문: A는 B를 C 하다→(부적절 선지: A는 C를 B 하다)  
**빈출 유형☆**

③ ⇒에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필수적이라 했으면 이 내용이 지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에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에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3문단 4문장]'은 있어도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지문을 모두 찾아 봐도 없다. 다만 1문단에 ~광자의 수가 적다,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 등의 표현이 있을 뿐이다.

◆출제자는 지문의 대상만을 바꿔 다음과 같이 불일치 선지를 만들었다.

- \* 지문: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 \* 불일치 선지: 광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전자대신 광자를 사용한 것은 1문단에 몇 번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이다.)

④

⇒ 저마늄은 100nm이 아닌, 800~1,600nm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끝문단 2문장]

▶ 불일치가 너무나 쉽게 판단되는 선지! 출제자가 실리콘의 범위(300~1,100nm)안의 숫자를 제외하고 왜 100nm로 설정했는지 이해가 안감. 그냥 쉽게 하려는 의도 밖에 안 보임.

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3문단]

⇒ 양공은 양의 전극이 아닌 음의 전극으로 이동함.

▶ 지문: A와 B는 각각 C와 D에 해당 →  
 (부적절 선지: B는 C에 해당)

20. <기술>

#원인이유 #밑줄다음이중요 #특정부분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5 %	4 %	7 %	65 %	6 %	15 %

◆정답 ③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양자 효율**: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 [2문단]

⇒ **양자 효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뿐만 아니라 **광자 수도** 필요하다. 그리고 ㉠**애벌랜치 영역**에 유입된 전자가 아니라 **흡수층**에 유입된 광자이다.

▶ 지문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의 전후 문장 특이하나 **다음 1~2문장에 정답 선지의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오답 풀이

①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3문단]

\*지문의 3개의 문장을 조합해야 알 수 있어 복잡하다. 정리하면,

\***애벌랜치 영역의 전자**:  
**역방향 전압의 작용** →(강한 전기장이 생김) →(큰 속도 가짐)

⇒ 전자의 속도를 증가 시키는 것은 직접적으로 **강한 전기장**이지만 이를 만드는 것이 **역방향 전압**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전자의 속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엔 **역방향 전압의 작용이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단, 역방향 전압의 작용이 전자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이유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전기장이 전자가 큰 속도를 가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

\* ㉠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속도가 증가한다.  
※조사 ~으로는 **원인** 혹은 **이유**로 사용되지만 선지 ①에서는 **원인**으로 사용된 것이다.

※**원인과 이유**를 구분해 보자!

ㄱ.**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ㄴ.**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역방향 전압의 작용 ⇒ 강한 전기장이 생김 ⇒ 큰 속도 가짐.

만약, ①이 역방향 전압의 이유로 전자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이 있다면 적절하지 않다.

②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3문단]

⇒ **충돌 이온화**는 **강한 전기장**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한 전기장이 없이는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처럼, '㉠에 형성된 강한 전기장으로 충돌 이온화가 일어난다.'로 바꾸어도 적절함)

▶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테마는 수능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이다. 지문과 선지에 **인과 관계가 뒤바뀌지 않게** 꼭 표시되어야 한다.

④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애벌랜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1)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2)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3)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3문단]

⇒ **충돌 이온화**1) ⇨ 전자의 수 증가2) (전류의 크기 증가=전류의 증가)3)

▶ 4개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조합해야 알 수 있는 복잡한 선지이다. 지문을 읽을 때 적절한 표시를 해두었는지라 관건!

⑤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

다.~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드는데, 이 현상을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3문단]

⇒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전자와 원자는 **충돌 이온화**를 일으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의 반복이 일어나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 19번에 비해 지문에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데 더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도 모든 정오의 근거는 3문단의 한정된 지문안에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꼼꼼히 본다면 틀린 것도 없다.

★ 만약 실제 시험때 시간이 없어서 19번과 20번 하나만 풀어야 한다면 당연히 20번을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정된 지문안에서 특정 부분을 묻는 20번의 풀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19번: 뒷글에 대한 이해 ⇨ 지문 전체를 살펴야함.  
(언제 정답을 만날지 모름)

20번: ㉠에 대한 이해 (㉠이 포함된 지문에 정답이 대부분 있음)

## 21. <기술>

#1대3대립선지 #수치비례 #3점 #보기제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1 %	3 %	7 %	81 %	4 %	3 %

### ◆정답 ③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3문단]

⇒ 작동 온도를 <보기>의 예비 실험 0℃에서 20℃로 바꾸면 작동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는 줄어든다.

▶ 지문: A와 B의 반비례→(부적절 선지: A와 B의 정비례) **비출 유형☆**

**수치의 비례가 자주 나오는 과학 기술 지문에 꼭 등장하는 유형!**

### ◆오답 풀이

①

1)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3문단]  
→(역방향 전압이 작아지면 전기장도 작아짐)

2)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3문단]

⇒ 역방향 전압이 <보기>의 110V에서 100V로 작아지면 전기장의 크기도 작아진다. 1) 전기장의 크기가 작아지니 증배 계수도 보기의 40보다는 작아진다. 2)

②

1)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통신에서는 적어진 수의 광자를 검출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1문단]

→(광자의 수가 적어서 빛이 약함)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그 빛을 검출하기 위해 그 만큼의 광자의 수가 필요함)

2)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2문단] →(광자와 전자는 정비례)

3)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그 결과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애벌랜치 증배’라고 부르며~ [3문단]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전자의 수가 늘어남)

⇒<보기>의 110V에서 120V으로 역방향 전압이 커지면 전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광자의 수도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자의 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지문: A와 B는 정비례, B와 C는 정비례  
→(적절 선지: A, B, C는 정비례) **비출 유형☆**

**수치의 비례가 자주 나오는 과학 기술 지문에 꼭 등장하는 유형!**

④

1) 광통신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은 매우 빠를 수 있지만,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거리 통신의 경우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질 수 있다. 빛은 광자의 흐름이므로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것은 단위 시간당 수신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가 적다는 뜻이다. [1문단]→ (빛의 세기와 광자의 수는 정비례)

2)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2문단]

→(광자와 전자는 정비례)

3)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3문단] →(전자의 수와 전류의 크기는 정비례)

⇒ 1)+2)+3)에 의해,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늘어나면 빛의 세기가 약해져 광자의 수가 적어짐. 그래서 생성되는 전자의 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전류도 그와 비례해서 작아진다.

⇒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보기의 1m에서 100m로 늘어났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광자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전류도 보기의 100nA보다는 작아진다.

▶지문: A와 B는 정비례, B와 C는 정비례  
→(적절 선지: A, B, C는 정비례) **빈출 유형** ☆

⑤

1)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부른다.[2문단]

2)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3문단]

\*1+2)에 의해, → (전자의 개수, 양자 효율, 전류의 크기는 모두 정비례)

<보기>: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

⇒ 900nm파장은 <보기>의 750~1,000nm 파장 대역 범위 안이기 때문에 양자 효율이 작아져 전자의 개수 또한 작아진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 또한 100nA보다 작아진다.

▶지문: A와 B는 정비례, B와 C는 정비례  
→(적절 선지: A, B, C는 정비례) **빈출 유형** ☆

★대단히 유용한 팁★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 선지의 일부를 수량 혹은 크기의 긍정 / 부정으로 분류해 보면, 선지 ③↔①, ④, ⑤) 1대 3 대립을 이룬다.

- ①~작아지겠군. →(부정)
- ② 해당없음
- ③~늘어나겠군. →(긍정) (☆실제 정답)
- ④~작아지겠군. →(부정)
- ⑤~작아지겠군. →(부정)

**그래서 지문 혹은 문제와 상관없이 1의 비율인 ③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이상이다.**

**“커뮤니티 풀이 후기”**

•애벌랜치가 항력보다 어렵지않나요? / 맛있는걸 x x

↳ 전...너무쉬웠음 애벌랜치는.. / MLHSVUu5zoNP x x

↳ 애벌랜치는 전자가 생기는 과정만 잘 이해하면 무난하던데~ / 인증안하면뭘 x x

**※22~26,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주제: 귀납이 지닌 논리적 한계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 1) 귀납의 특성과 문제점
- 2)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①-귀납의 정당화 문제  
↳(23번 정답 근거)
- 3)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라이헨바흐의 논증  
↳(24번 정답 근거)
- 4)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②-미결정성 문제 ↳(25번 정답 근거)
- 5) 미결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대 철학자들의 노력  
↳(22번 정답 근거)

- 1) \*귀납: (연역 제외) 전체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추론.  
\*귀납의 지식 확장: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 →(문제점 발생)
- 2) \*흠: (미래=과거) 자연의 일양성 주장  
\*귀납의 정당화 문제: 자연의 일양성은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함. 그 지식은 다시 정당화되어야 한 순환 논리에 빠짐.
- 3) \*라이헨바흐:  
자연의 일양성-경험에 따라 귀납은 성공적  
자연의 비일양성-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
- 4) \*미결정성: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 불가.

5) \*귀납의 미결정성 해결의 시도점:

- 전제와 결론 사이의 개연성은 확률로 표현
- 하나의 가설(예측)이 다른 가설(예측)보다 더 낫다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 →(확률 논리의 개연성은 일상적인 직관에도 잘 맞음)

22. <철학>

#내용 전개 #병렬적 #역사적(통사적, 시간 관련)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6 %	3 %	1 %	4 %	4 %	86%

◆정답 ⑤

- 1)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1문단]
- 2)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2문단]
- 3)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3문단]
- 4)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4문단]

⇒ 1)~4)를 통해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⑤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에서 특히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끝문단 1문장**]: 그러나 **미결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현대철학자들은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 끝문단 1문장만으로도 이전 문단의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귀납의 문제점**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귀납**’, ‘**문제**’가 포함된 선지를 ②, ⑥로 추려볼 수 있음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정답)

[**끝문단 끝문장**]: 이러한 시도는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귀납은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귀납의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나왔음을 알 수 있음)

그래서 끝문장을 통해 해결과 관련 어휘가 있는 선지 ⑤가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제 정답이기도 하다.

(2016 수능 B 21번) 전개방식 문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문단 끝문장**]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정답)

◆오답 풀이

①

\*즉 “**귀납이** 정당화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2문단]

⇒ 귀납에 대한 흠의 평가는 2문단에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병렬적은 나란히 늘어서는 방식으로 평가가 총 두 번 이상은 나와야 병렬적으로 소개된다고 볼 수 있다.**

▶ 사례가 딱 한번만 나오면 병렬, 나열, 열거, 반복등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②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1문단]

⇒ 연역은 귀납을 정의하기 위해 지문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된 것 밖에 없다. 당연히 귀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없다.

③ ⇒ **귀납 위상의 격상과 과정의 역사적 고찰**은 지문에 관련된 내용조차 없다.

▶ 역사적 고찰이 지문에 있다면 **시간과 관련된 표현** 혹은 **시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